

DAISHIN START

* START=Strategic Analysis and Refreshing Thoughts

예고된 어닝 쇼크,
이제 수급과 환율을 보자

Focus ▶ 3p 참고

Strategist 오승훈 02.769.3803 oshoon99@daishin.com

삼성전자의 어닝쇼크와 주가반응은 1월과 유사. 12% 하락한 주가는 어닝쇼크를 선반영.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하향조정으로 한국 기업이익 하향조정 마무리는 1~2주 지연(현대차 24일 실적발표). 환율 변화에 주목. 7월중 원달러 환율 저점에 대한 인식 강화시 실적과 관련된 환율 스트레스 완화. 수급에서도 긍정적 변화 나타나고 있음. 높아진 펀드순유입 지수대, 낮아진 펀드환매 압력은 주가의 안전판. 6월 통화정책 이후 유럽계 펀드 비중이 높은 Asia ex Japan펀드의 자금유입은 유럽계 자금 유입의 시그널

2014년 07월 09일 수요일

KOSPI

2006.66 ▲1.54 (0.08%)

	7/04	7/07	7/08
증가	2009.66	2005.12	2006.66
등락	-1.31	-4.54	1.54
등락폭(%)	-0.07	-0.23	0.08
거래량(백만주)	240	227	258
거래대금(십억원)	3,047	3,005	3,389
시가총액(십억원)	1,158,679	1,154,749	1,155,689

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표시

KOSDAQ

554.9 ▲1.75 (0.32%)

	7/04	7/07	7/08
증가	552.90	553.15	554.90
등락	2.22	0.25	1.75
등락폭(%)	0.40	0.05	0.32
거래량(백만주)	348	305	322
거래대금(십억원)	1,897	1,816	2,145

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표시

증시일정 ▶ 2p

파생시황 ▶ 9p

Chart Alarm ▶ 10p

매매 및
자금동향 ▶ 16p

8일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부진에도 0.08% 상승한 2,006.66에 마감

주간 증시 일정

일	화	수	목	금
30	7/1	2	3	4
美 5월 미결주택매매 (전기:0.5%, 발표:6.1%) EMU 6월 소비자물가 발표 (전기:0.5%, 발표:0.5%)	美 6월 ISM 제조업지수 (전기:55.4, 발표:55.3) 中 6월 제조업 PMI (전기:50.8, 발표:51.0) 中 6월 HSBC 제조업 PMI 최종 (전기:49.4, 발표:50.7) EMU 6월 제조업 PMI 확정 (전기:52.2, 발표:51.9) 韓 6월 수출 (전기:-0.9%, 발표:2.5%)	美 5월 제조업수주 (전기:0.8%, 발표:-0.5%) 美 6월 ADP 취업자변동 (전기:179K, 발표:281K)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전기:313K, 발표:315K) 美 6월 ISM 비제조업지수 (전기:56.3, 발표:56.0) 美 6월 비농업취업자변동 (전기:224K, 발표:288K) 美 6월 실업률 (전기:6.3%, 발표:6.1%) ECB 회의	獨 5월 공장수주 (전기:6.6%, 발표:5.5%)
7	8	9	10	11
EMU 7월 섹터투자지대 (전기:8.5, 예상:7.8) 獨 5월 산업생산 (전기:1.8%, 예상:3.6%)	美 5월 JOLTs 신규고용 (전기:4.5M, 예상:--)	中 6월 소비자물가 (전기:2.5%, 예상:2.4%) 中 6월 생산자물가 (전기:-1.5%, 예상:-1.0%) 美 FOMC 회의록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전기:315K, 예상:315K) 美 5월 도매재고 (전기:1.1%, 예상:0.6%) 中 6월 수출 (전기:7.0%, 예상:10.2%) 中 6월 수입 (전기:-1.6%, 예상:5.6%) 韓 금통위	EMU 무디스 신용등급 발표
14	15	16	17	18
EMU 5월 산업생산 (전기:1.4%, 예상:--) 日 금정위	美 6월 소매판매 (전기:0.3%, 예상:--) EMU 7월 ZEW 예상 (전기:58.4, 예상:--) 獨 7월 ZEW 예상 (전기:29.8, 예상:--) 日 금정위	美 6월 산업생산 (전기:0.6%, 예상:--) 中 2Q 경제성장률 (전기:7.4%, 예상:--) 中 6월 산업생산 (전기:8.8%, 예상:--) 中 6월 소매판매 (전기:12.5%, 예상:--) 中 6월 고정자산투자 (전기:17.2%, 예상:--)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6월 주택착공건수 (전기:1001K, 예상:--) 美 6월 건축허가건수 (전기:991K, 예상:--) EMU 6월 소비자물가 최종	美 6월 경기선행지수 (전기:0.5%, 예상:--) 美 7월 소비심리지수 (전기:82.5, 예상:--)
21	22	23	24	25
	美 6월 소비자물가 (전기:0.4%, 예상:--) 美 6월 기존주택매매 (전기:4.89M, 예상:--)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EMU 7월 복합 PMI 잠정 (전기:52.8, 예상:--) 獨 7월 복합 PMI 잠정 (전기:54.0, 예상:--) 中 7월 HSBC 제조업 PMI 최종 (전기:50.7, 예상:--) 韓 2Q 경제성장률 (전기:3.9%, 예상:--)	美 6월 내구재주문 (전기:-1.0%, 예상:--) 獨 7월 IFO 기업환경 (전기:109.7, 예상:--) 日 6월 소비자물가 (전기:3.7%, 예상:--)
28	29	30	31	8/1
美 6월 미결주택매매 (전기:6.1%, 예상:--)	美 5월 CS 주택가격 (전기:0.19%, 예상:--) 韓 6월 경상수지 (전기:9.3B, 예상:--) 美 FOMC	美 7월 ADP 취업자변동 (전기:281K, 예상:--) 美 2Q 경제성장률 (전기:-2.9%, 예상:--) 韓 6월 산업생산 (전기:-2.1%, 예상:--) 韓 6월 선행지수순환변동치 (전기:101.3, 예상:--) 美 FOMC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EMU 7월 소비자물가 예상 EMU 6월 실업률 (전기:11.6%, 예상:--)	美 7월 비농업취업자변동 (전기:288K, 예상:--) 美 7월 실업률 (전기:6.1%, 예상:--) 美 7월 ISM 제조업지수 (전기:55.3, 예상:--) 中 7월 제조업 PMI (전기:51.0, 예상:--) 中 7월 HSBC 제조업 PMI 최종 (전기:50.7, 예상:--)

주: 날짜는 해당국의 Local Time 기준이며 예상치는 Bloomberg 기준, K는 천, M은 백만을 의미
미국 지표인 경우 전기대비, 다른 국가들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데이터를 나타냄

투자포커스

예고된 어닝 쇼크, 이제 수급과 환율을 보자

Strategist 오승훈 769-3803 oshoon99@daishin.com

1월과 유사한 삼성전자 어닝쇼크와 주가 반응

삼성전자가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7.2조로 컨센서스인 8.0조를 크게 밑돌았고 가장 보수적인 국내 추정치(7.5조)에도 미치지 못했다[그림1].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 수준은 2013년 4분기 잠정실적이 발표되었던 지난 1월과 유사하다. 지난 1월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8.3조원을 기록해 컨센서스 9.3조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 패턴은 연초의 상저하고 전망과 달리 1분기 영업이익 9.3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그림2].

*삼성전자 주가는 이익하향을 선반영

전일 어닝쇼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선방했다. 어닝쇼크가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주가의 하방경직성을 만들어 주었다고 판단한다. 주가의 패턴도 지난 1월과 비슷하다. 1월의 경우 삼성전자 주가는 잠정실적 발표전 25일 동안 13% 하락했다. 이번에도 잠정실적 발표전 24일 동안 12%가 하락했다[그림3].

1월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이후 연간 영업이익은 6% 하향조정 된 바 있다. 주가도 잠정실적 이후 이익하향 반영하여 저점까지 5% 추가 하락한 바 있다. 이번에도 삼성전자의 2분기 어닝쇼크로 3분기, 4분기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향조정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2014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3.8조로 2분기 쇼크와 하반기 하향조정을 반영하면 31조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2% 하락한 주가는 2분기 어닝쇼크를 이미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5%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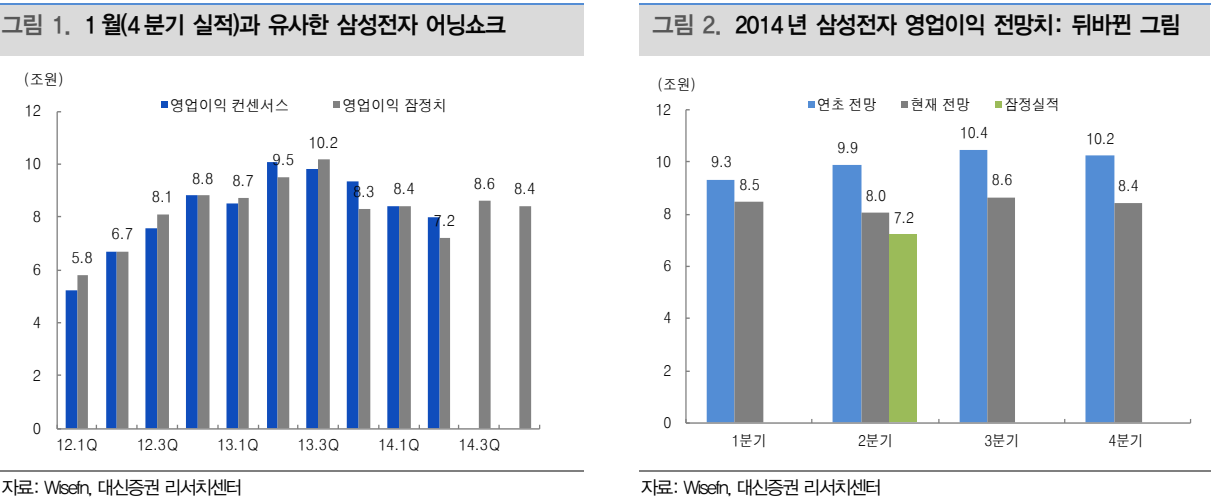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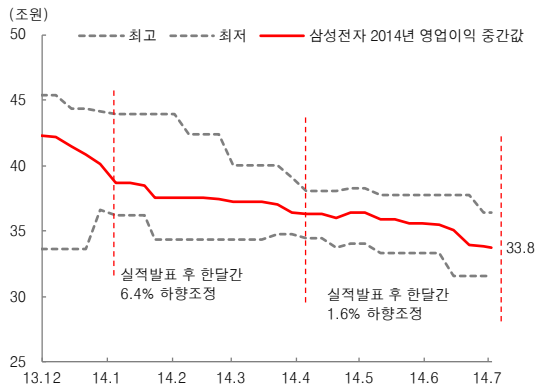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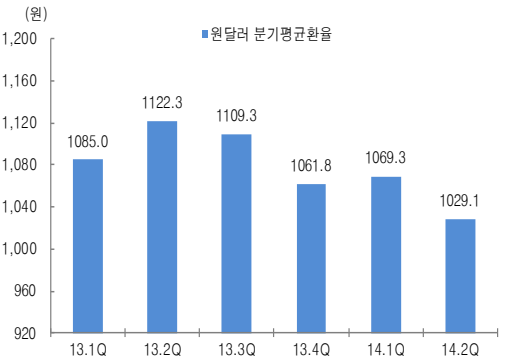


그림 3.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의 추가 하향조정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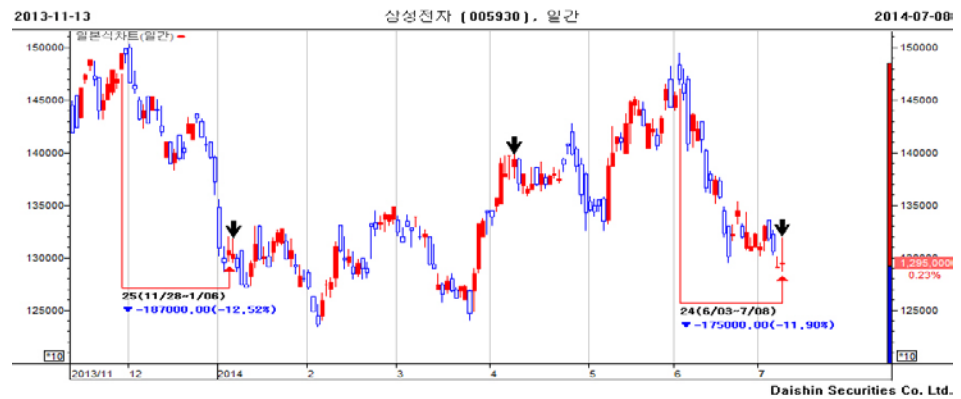
자료: Wsai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원달러 분기 평균 환율



자료: Wsai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삼성전자 주가 지난 1월과 유사한 궤적 : 실적에 대한 가격 조정은 마무리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앞으로의 변화 – 원달러 환율이 돌아서면

1월과 유사하게 삼성전자 어닝쇼크가 발생했고, 2013.4분기와 유사한 환율 환경(분기평균 원달러 환율 3%이상 하락)을 감안하면 24일 실적을 발표할 현대차 실적에 대한 경제심리가 높아질 수 있다. 1월 주가 패턴을 보더라도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이후 횡보하던 코스피는 현대차의 실적 발표 이후 2차 하락이 나타난 바 있다.

이제 예고된 어닝쇼크보다 앞으로의 변화를 봐야 할 시점이다. 변화의 포인트는 환율이다. 어닝쇼크와 함께 원화강세는 향후 이익전망을 더 어렵게 만드는 변수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7월 중 원달러 환율의 연중 저점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진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달러당 1천원을 위협할 수 있지만 1천원선 하회 이후에는 지금까지 원화강세를 이끌었던 심리와 일시적인 수급보다는 경상수지 등 기초여건을 반영해 다시 달러당 1,020원대로 복귀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통위에서 전격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지만 환율 하락에 대한 중앙은행의 경계감이 표출된다면 환율 저점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 원달러 환율 저점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 실적에 반영된 환율관련 스트레스는 점차 해소되어 갈 것이다.

그림 6. 원달러 환율 추이 : 1월 어닝쇼크 이후 원화강세 진정



자료: Wisein, 대산증권 리서치센터

변화된 국내 수급 여건 – 하단은 올라오고 상단은 좁어지다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하단은 견고하다.

주식형 펀드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전과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3월말 이후 외국인은 7.3조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시기 주식형 펀드에서의 순유출 규모는 3.2조원이었다. 아직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있다[그림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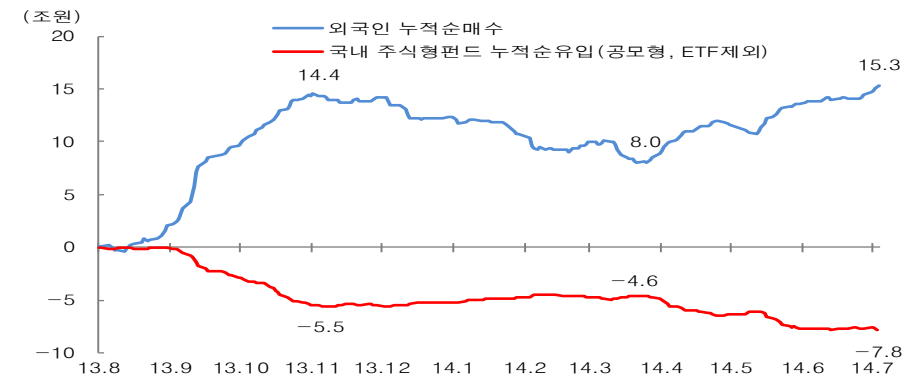
지난해와 달리 펀드 순유입 지수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향후 펀드 환매 압력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수급상 중요한 변화이다.

[그림8]은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의 주식형펀드(공모형, ETF제외)의 순유입을 나타낸 것이다. 2013년 하반기와 달라진 점은 1950이하에서 펀드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수 하단을 올리고 하단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향후 3개월의 펀드 환매 압력도 지난해 하반기 대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추정한다. [그림11]은 코스피 지수와 국내 주식형펀드(공모형, ETF제외)의 환매압력을 추정한 것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환매 압력은 현시점에서 3개월 전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6개월간의 주식형 펀드 설정 금액의 변화를 통해 도출하였다. 즉 현시점의 펀드 환매 압력은 2013.10월부터 2014.3월까지 유입된 펀드 설정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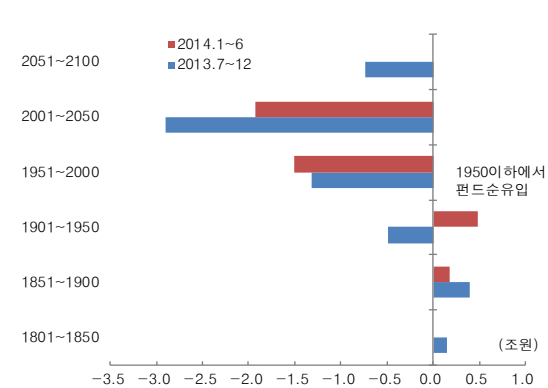
이를 통해 향후 3개월간의 펀드 환매 압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11]에서 보는 바와같이 향후 3개월은 펀드 설정 금액이 하락하는 구간이다. 2013년 8~10월 펀드 환매 압력이 극대화되었던 시점(약 5.5조원 순유출)과 비교할 만 하다. 향후 그동안 주춤했던 미국계, 유럽계 자금의 복귀시 상승 탄력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7. 2013년 8월 이후 외국인 누적순매수와 펀드 환매



자료: 금융투자협회, Wset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펀드 유입 지수대 높아져. 1950 이하에서 유입



자료: 금융투자협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향후 3개월 펀드 환매 압력 약화



자료: 금융투자협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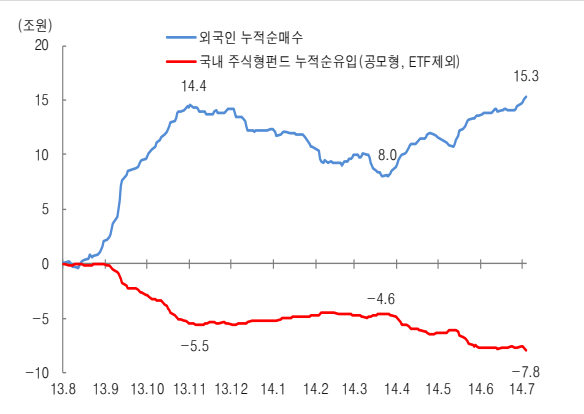
유럽계, 미국계 외국인의 복귀시점

2013.8월~10월, 한국에 대한 14조 순매수를 주도했던 외국인은 미국계와 유럽계 자금이 었다. 2014년 3월말 이후 외국인이 7.3조원을 순매수했지만 주체는 달랐다. 2014년 외국인 순매수는 중동계와 아시아계 자금이 주도하고 있다[그림10, 11].

한국증시 외국인 시가총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계와 유럽계 자금은 아직 한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사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이익 때문으로 판단한다. [그림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기업이익은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조정 되어 왔다. 반면 이머징아시아의 이익추정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차별화되었다. 이익측 면에서 한국의 매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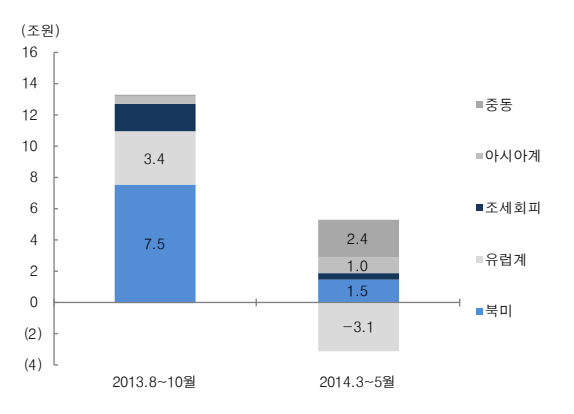
결국 한국 기업이익의 하향조정이 마무리되면서 한국의 절대적 매력이 높아지거나, 비교대상인 이머징아시아의 이익추정치가 하향되면서 한국의 상대적 매력이 높아질 때 미국계, 유럽계 자금의 복귀가 나타날 것이다. 삼성전자의 어닝쇼크로 한국 기업이익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는데 1~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0. 2014년 외국인 매수는 중동계, 아시아계자금이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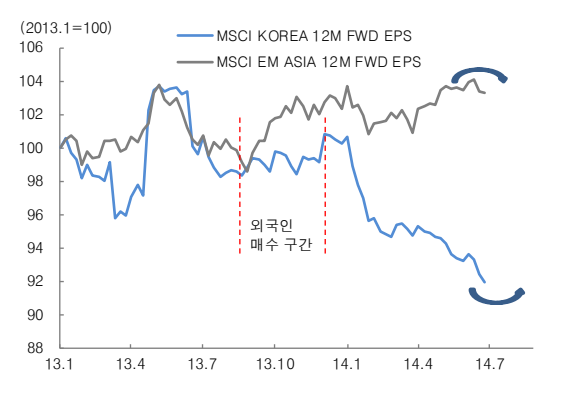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W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2014년 중동, 아시아계 3.4조원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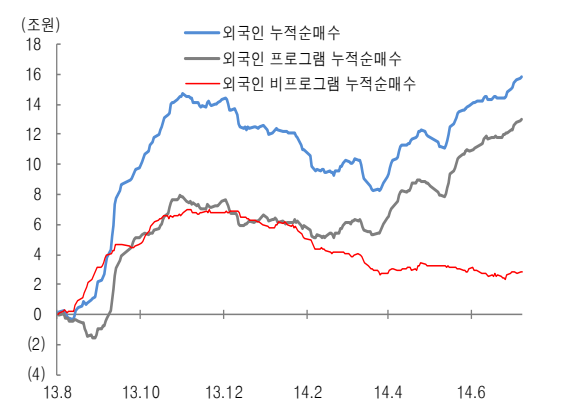
자료: 금감원,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이익하향조정이 멈추는 시점에 미국계, 유럽계 자금의 유입 본격화 될 것



자료: W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외국인 비프로그램 매수 부진



자료: W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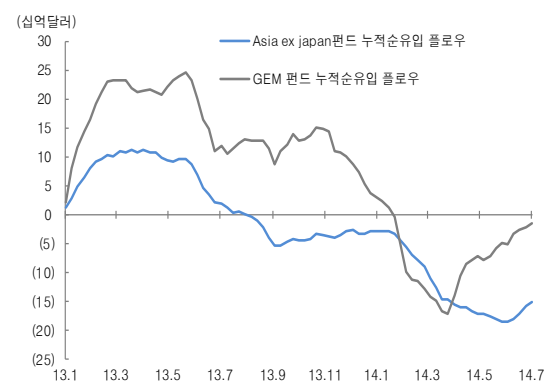
*유럽 통화정책과 유럽계 자금의 유입 신호

6월 중순 이후 주간 단위 글로벌 펀드플로우에서 특징적인 현상은 Asia ex-Japan펀드로 자금유입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그림14]. Asia ex-Japan펀드는 한국의 유럽계 자금의 순유입과 상관관계가 높다[그림15].

Asia ex-Japan펀드와 한국의 유럽계 자금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펀드 소재지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Asia ex-Japan펀드의 유럽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Asia ex-Japan펀드의 54%가 유럽에 소재지를 둔 펀드이다[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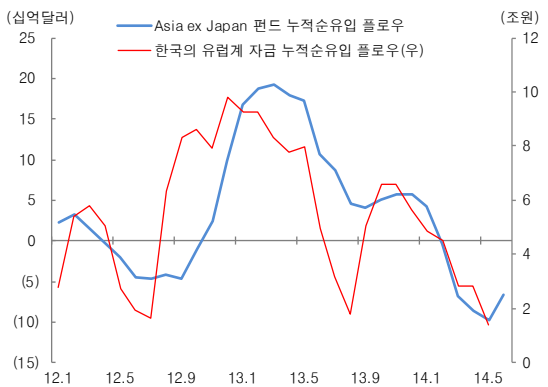
Asia ex-Japan펀드의 자금유입 강화는 6월초 유럽의 통화정책 발표 이후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 유럽의 통화정책 확장과 함께 유럽계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4. Asia ex Japan 펀드로의 자금유입 강화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Asia ex Japan 펀드와 한국의 유럽계 자금



자료: 금감원,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표1] EPFR 데이터 세부 분류 : Asia ex Japan펀드의 소재지 비중 유럽이 압도적

EPFR 지역별 분류	ETF 비중(%)	기관투자자 비중(%)	펀드 소재지 비중		
			미국 비중(%)	유럽 비중(%)	유럽 내 룩셈부르크 비중 (%)
All Fund	28.3	59.2	63.4	30.0	9.8
US Fund	31.3	61.2	91.1	7.5	3.5
서유럽 Fund	23.2	52.2	6.8	92.4	19.2
글로벌 Fund	16.5	52.1	59.4	35.6	11.7
일본 Fund	58.2	69.8	14.0	26.9	10.5
Pacific Fund	13.4	46.3	43.0	51.9	17.1
GEM Fund	25.0	74.4	62.1	36.8	18.6
Asia ex-Japan Fund	38.1	62.6	16.9	53.5	26.4
EMEA Fund	43.0	58.8	10.2	59.4	31.2
Latin America	58.2	74.0	29.0	39.4	26.1

파생시황

선물거래동향				
구분	9월 선물	12월 선물	KOSPI200	KOSPI
시가	260.85	262	259.7	2003.55
고가	261.4	262.8	260.76	2009.22
저가	259.5	261	258.74	1997.87
종가	260.45	262	259.93	2006.66
전일대비	-0.15	0	-0.02	1.54
(%)	-0.06	0	-0.01	0.08
거래량(계약)	151,942	389	45,869	256,431
거래대금(백만)	19,790,048	50,936	2,471,702	3,369,937
미결제약정	104,199	1,175		
전일대비	22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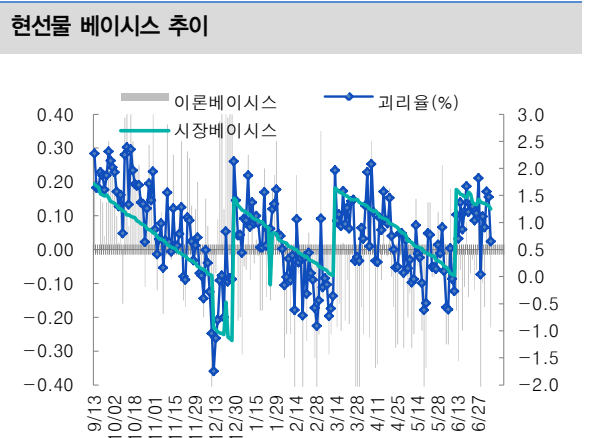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과리도				
구분	이론가격	과리율	종가Basis	평균Basis
최근월물	261.18	-0.16	0.52	0.81
차근월물	262.89	-0.28	2.07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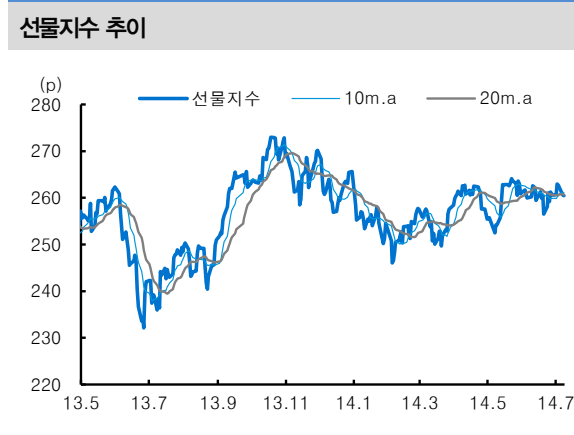
프로그램매매동향									
(단위:백만원,%)									
구분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전체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07/04	8,744	29,465	20,722	398,320	510,883	112,562	407,064	540,348	133,284
07/07	7,205	6,875	-330	559,607	530,692	-28,915	566,811	537,566	-29,245
07/08	8,408	10,447	2,039	638,041	670,860	32,819	646,449	681,307	34,858

옵션거래동향				
(단위: 계약, 배,%)				
구분	CALL	PUT	합계	P/C Ratio 당일
거래량	1,279,875	1,177,026	2,456,901	0.92
거래대금	431,138	413,506	844,644	0.96
미결제약정	505,079	568,675	1,073,754	1.13
내재변동성	9	12	10	1.30

역사적 변동성			
(단위: %)			
구분	당일	52w High	52w Low
20일	13.76	26.95	7.87
30일	11.85	26.05	8.18
60일	15.49	23.55	10.82
90일	16.81	22.30	1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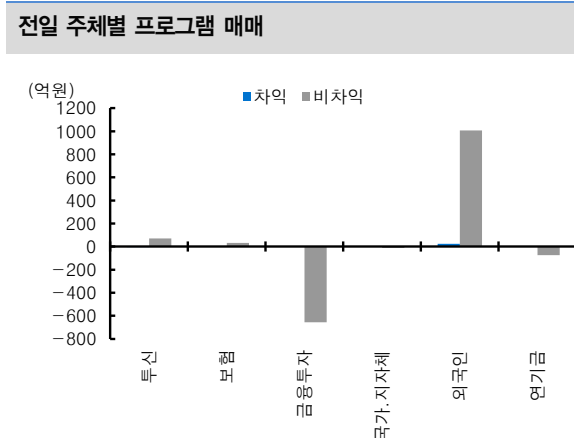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스프레드			
구분	종가	전일대비	거래량
J9JCS	1.45	0.00	145
J9J3S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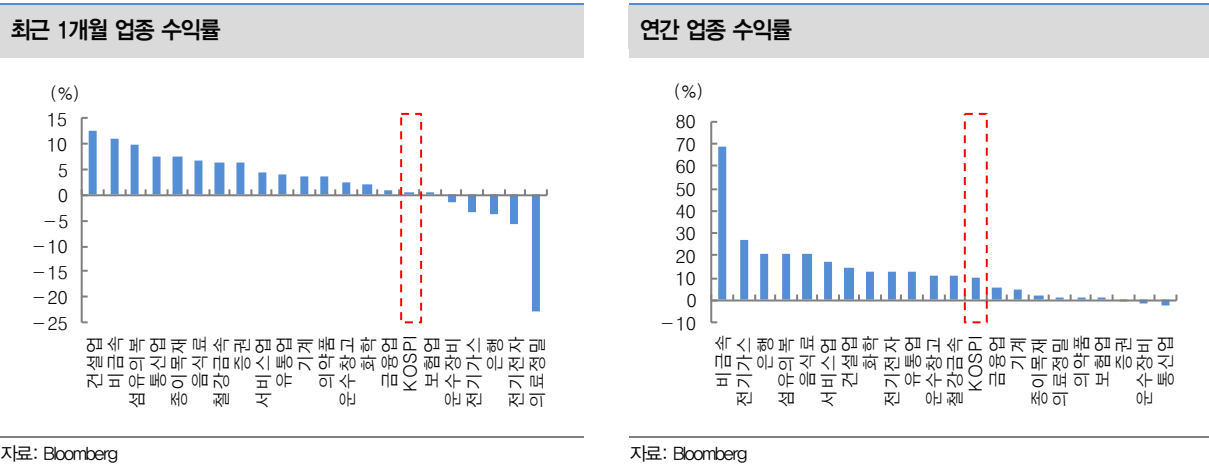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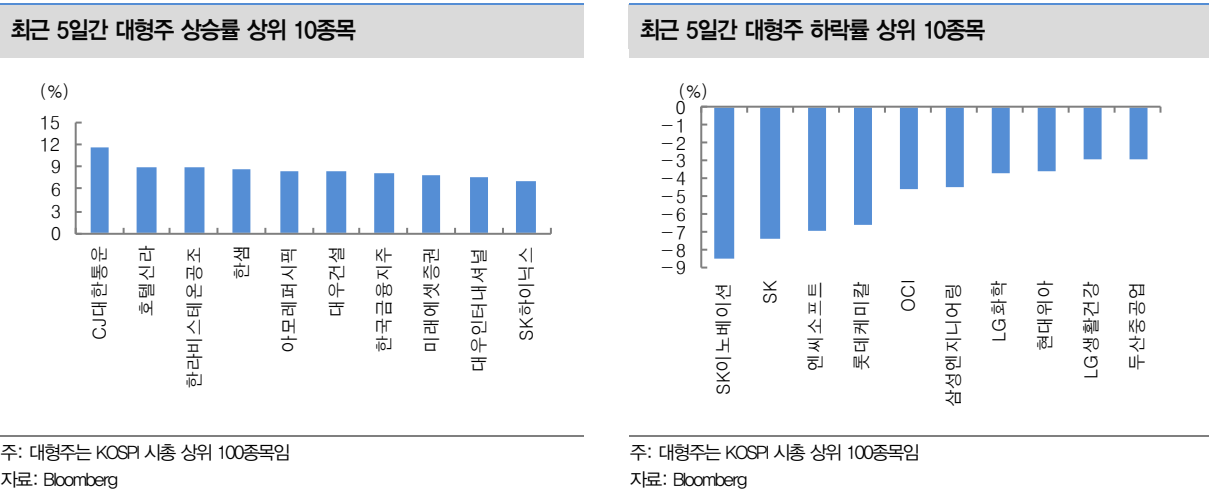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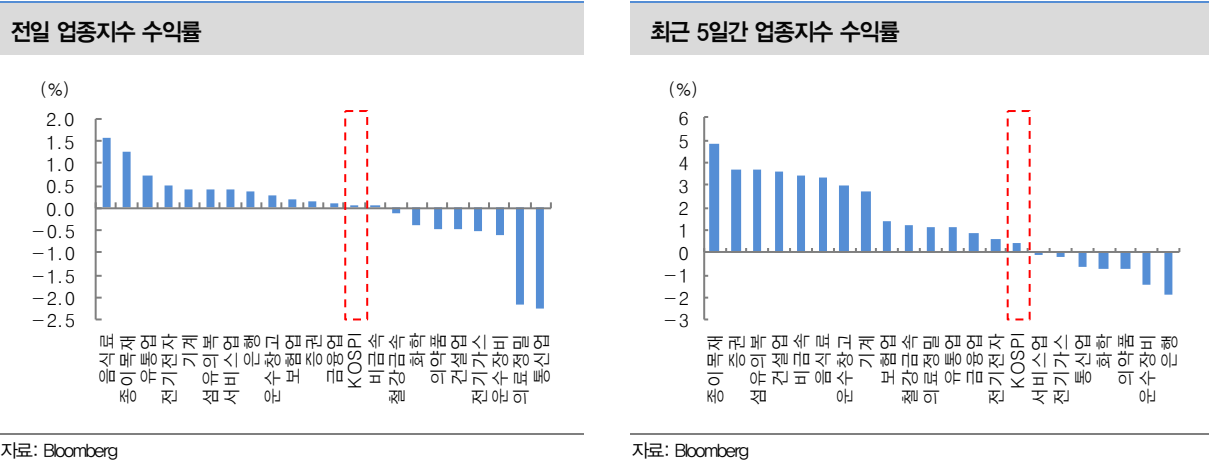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Chart Alarm

01. 주가 등락률
- 8일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부진에도 0.08% 상승한 2,006.66에 마감
 - 외국인은 955억원, 개인은 420억 순매수, 기관은 금융투자외 투신을 중심으로 1,306억원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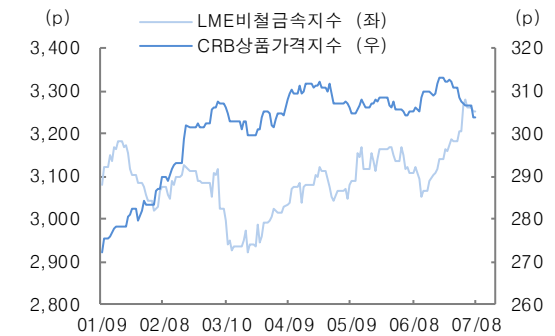
▶ 국내 증시



02. 상품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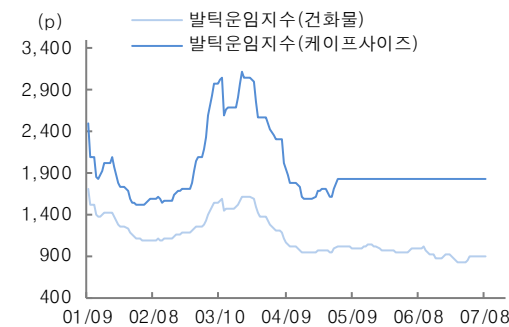
-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8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0.5% 하락한 103.53달러에 거래를 마감
- 8월물 금값은 전날 증가보다 0.3% 내린 온스당 1317.60달러에 거래를 마침

CRB상품 가격과 LME 비철금속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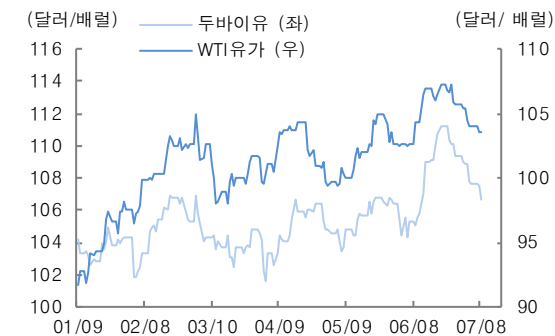
주: LME비철금속지수는 알루미늄, 전기동, 납, 니켈, 주석, 아연의 현물시세
자료: Bloomberg

발틱 운임 지수(BDI, B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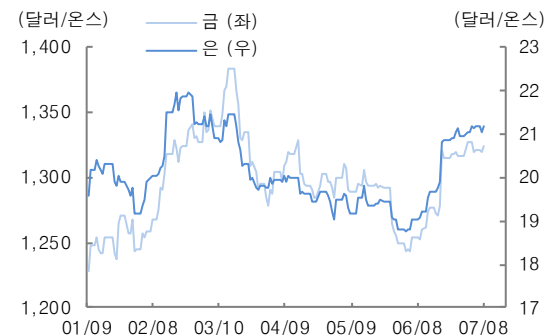
주: 케이프사이즈는 15만DWT 이상 최대 용량의 벌크선임
자료: Bloomberg

국제유가(WTI, 두바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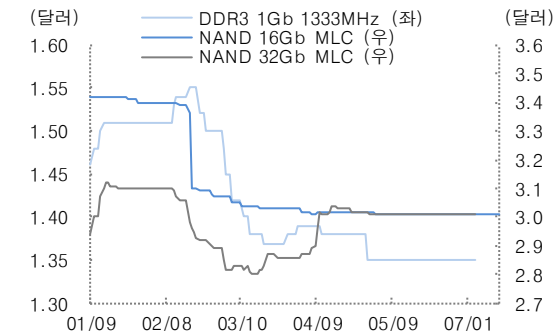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금, 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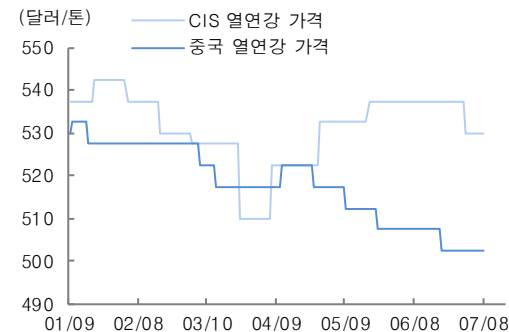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RAM과 NAND 현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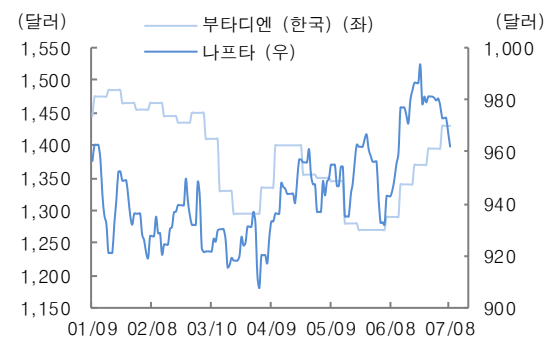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철강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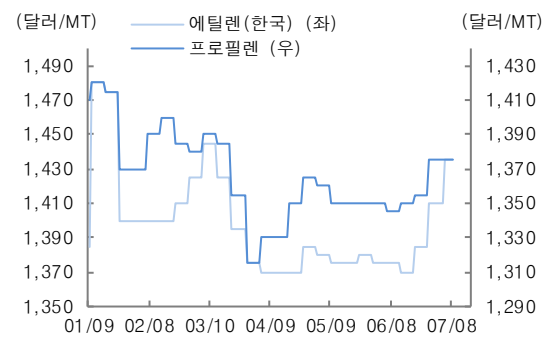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나프타, 부타디엔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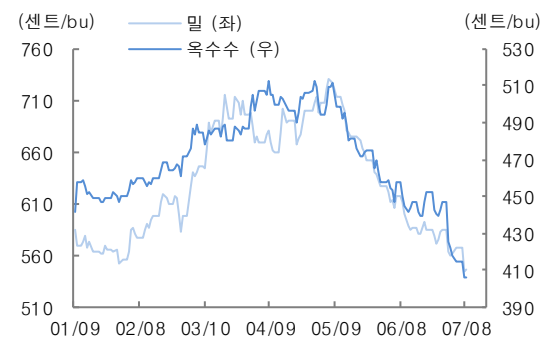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에틸렌, 프로필렌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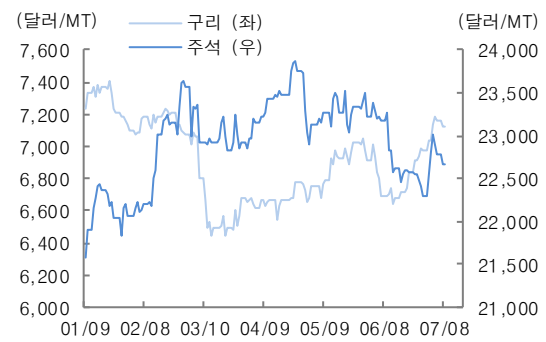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밀, 옥수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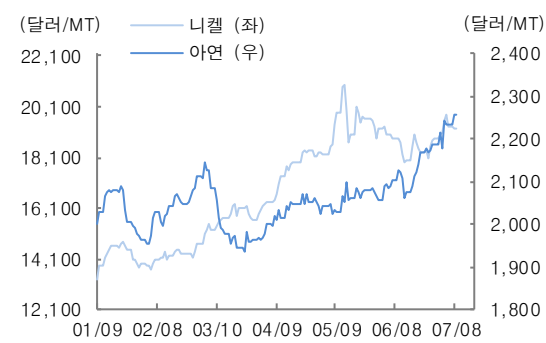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구리, 주석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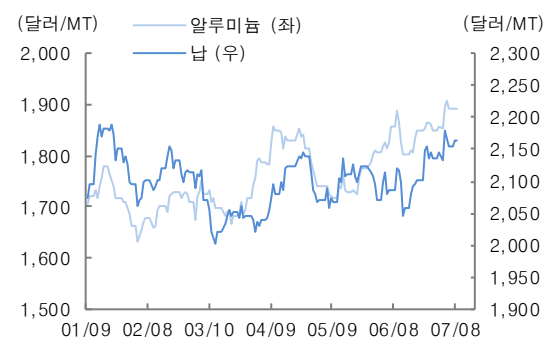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니켈, 아연 가격



자료: Bloomberg

알루미늄, 납 가격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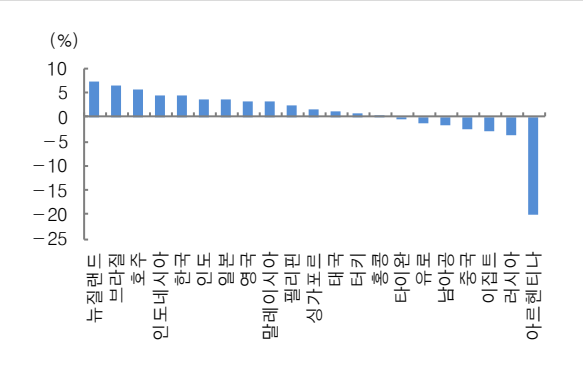
03. 금융지표

환율/금리/리스크 지표

-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7원 오른 1011.20원에 개장해 상승폭을 더욱 키워 1.4원 오른 1011.90원에 마감
- 지표물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3.5bp 상승한 2.647%에 거래를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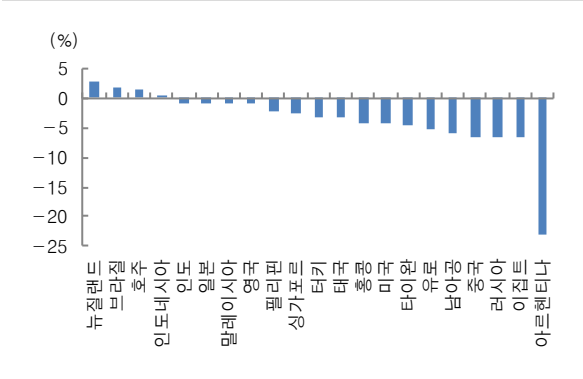
▶ 환율

주요국 기준환율의 2014년 절상률 (달러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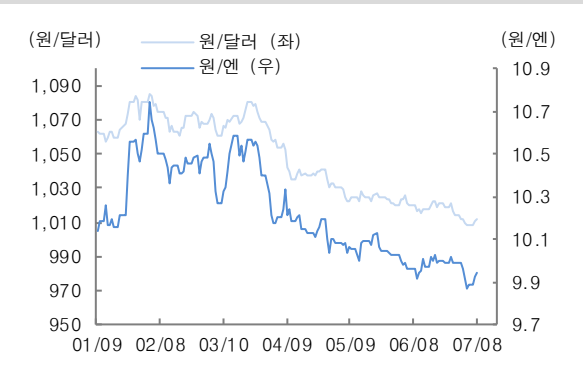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요국 기준환율의 2014년 절상률 (원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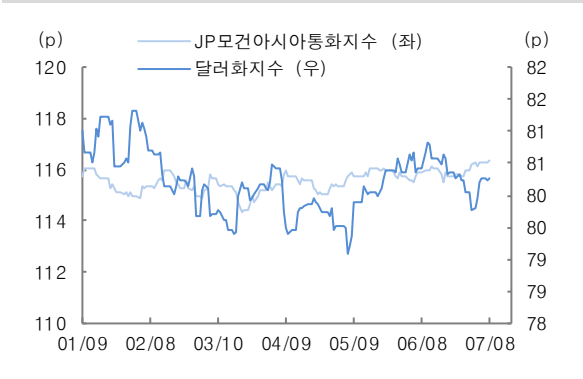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원/달러, 원/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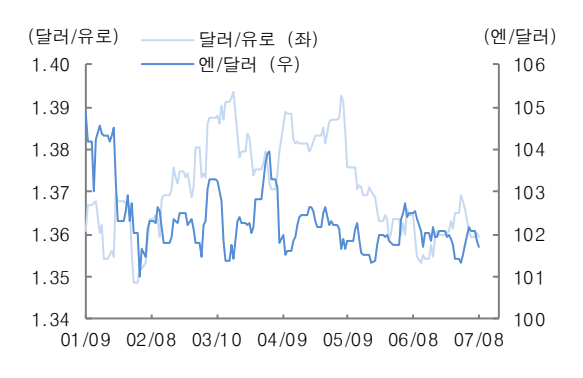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달러화 지수와 JP모건 아시아 통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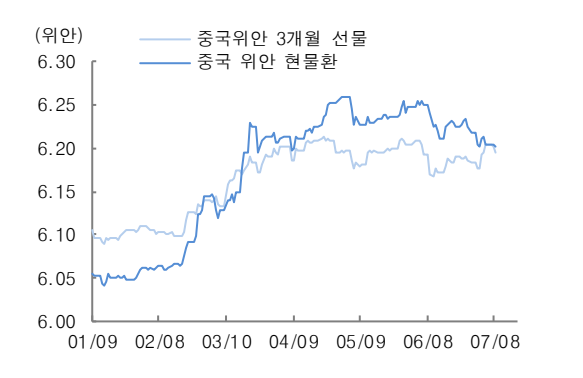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달러/유로, 엔/달러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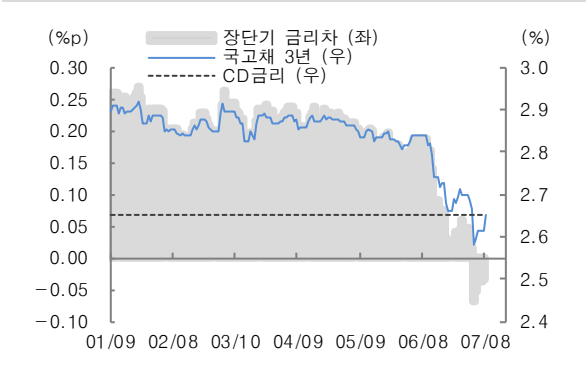
중국 위안화 현선물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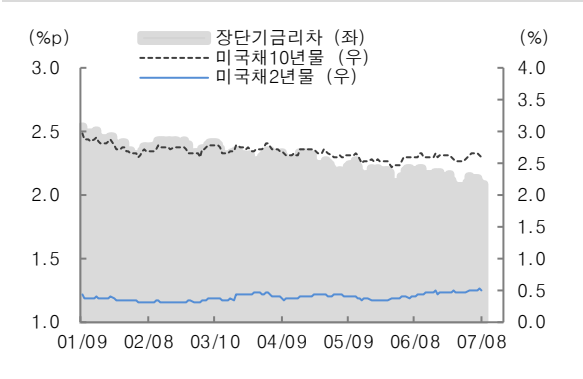
▶ 금리 및 리스크 지표

국고채3년, CD금리와 장단기 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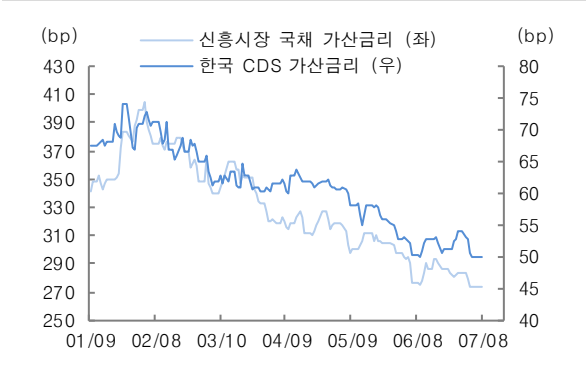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 국채 10년물, 2년물과 장단기 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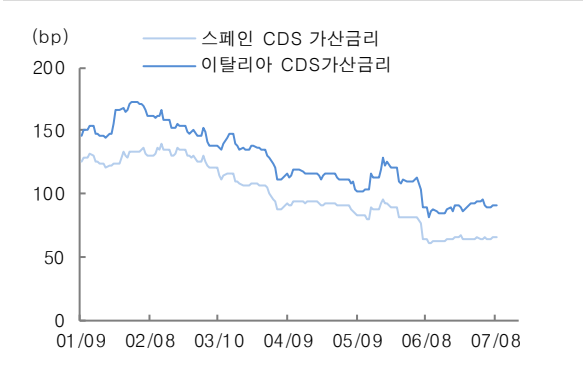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용시장 국채 가산금리와 한국 CDS 가산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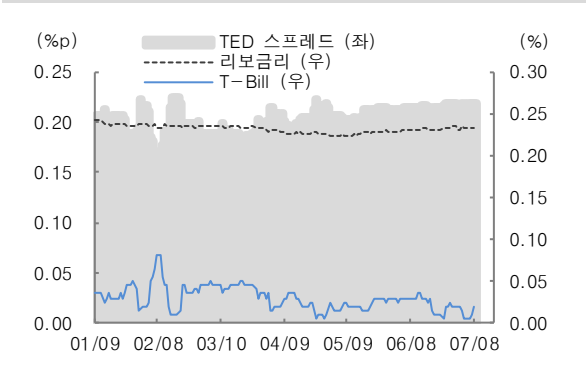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스페인, 이탈리아 CDS 가산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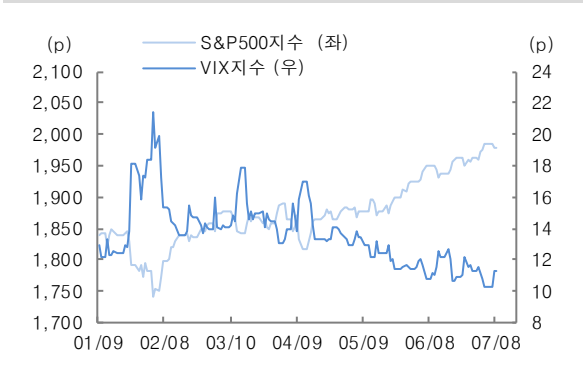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TED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S&P500 지수와 VIX 지수



자료: Bloomberg

매매 및 자금 동향

▶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유가증권시장: 순매수 금액) (단위: 십억원)

구분	7/08	7/07	7/04	7/03	7/02	07월 누적	14년 누적
개인	27.3	70.3	31.5	-23.8	-244.5	-101	-6
외국인	98.4	187.5	33.5	159.2	314.8	894	3,133
기관계	-133.1	-249.5	-64.8	-116.8	-50.0	-742	-2,729
금융투자	-49.2	-25.7	64.3	46.1	46.6	101	-3,017
보험	-0.5	-33.8	-12.2	-0.7	35.6	-19	734
투신	-42.7	-126.6	-89.7	-116.1	-103.5	-540	-1,717
은행	-0.9	-18.7	-8.8	-12.4	-10.0	-67	-1,166
기타금융	-1.4	-1.1	-1.1	0.0	-1.2	-7	-585
연기금	-19.1	-11.0	-3.6	-36.5	-14.6	-119	3,312
사모펀드	-12.3	-37.0	-5.9	0.9	-4.0	-80	-322
국가지자체	-7.1	4.2	-7.7	1.9	1.1	-10	33

자료: Bloomberg

▶ 종목 매매동향

유가증권 시장 (단위: 십억원)

외국인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삼성전자	40.1	강원랜드	15.2	LG 디스플레이	14.9	엔씨소프트	30.8
현대차	20.9	아모레퍼시픽	10.6	아모레퍼시픽	12.6	삼성전자	25.7
SK 하이닉스	17.9	SK 텔레콤	7.8	강원랜드	11.7	현대모비스	22.9
삼성화재	11.9	LG 화학	7.2	POSCO	8.1	현대차	22.8
LG 전자	9.9	삼성 SDI	6.4	현대글로벌비스	6.8	기아차	16.2
현대건설	9.5	현대모비스	5.8	삼성 SDI	6.5	SK 하이닉스	14.6
삼성물산	8.9	현대글로벌비스	5.4	CJ	6.0	롯데케미칼	12.7
롯데케미칼	7.9	한국전력	5.0	LG 전자	5.1	삼성물산	11.2
엔씨소프트	7.4	대림산업	4.9	KCC	4.5	SK 이노베이션	11.1
코웨이	6.7	현대중공업	4.8	KB 금융	4.5	삼성화재	10.5

자료: KOSCOM

코스닥 시장 (단위: 십억원)

외국인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파트론	2.1	컴투스	1.8	파라다이스	9.7	블루콤	4.1
서울반도체	1.8	선데이토즈	1.2	KH 바텍	5.5	서울반도체	3.8
셀트리온	1.7	CJ 오쇼핑	1.1	인터파크	2.3	컴투스	2.6
위메이드	1.3	미디어플렉스	1.0	내츄럴엔도텍	1.5	다음	2.6
중앙백신	1.2	코엔텍	0.9	에스엠	1.3	선데이토즈	2.1
이오테크닉스	1.1	에스에프에이	0.9	조이맥스	1.1	인포피아	1.6
삼천당제약	1.1	블루콤	0.8	바텍	1.1	솔브레인	1.2
씨젠	1.0	이지바이오	0.7	모두투어	1.0	KCC 건설	1.2
다음	0.9	에스넷	0.7	토비스	1.0	이라이컴	1.1
파라다이스	0.9	엑토즈소프트	0.7	디엔에프	0.9	게임빌	0.9

자료: KOSCOM

▶ 최근 5일 외국인 및 기관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 (단위: %, 십억원)						기관 (단위: %, 십억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삼성전자	159.2	-2.6	강원랜드	87.6	5.9	강원랜드	86.9	5.9	삼성전자	226.3	-2.6
SK 하이닉스	158.2	3.0	아모레퍼시픽	41.5	7.7	LG 화학	49.3	-4.1	현대차	137.7	-2.2
현대차	132.8	-2.2	LG 화학	40.3	-4.1	아모레퍼시픽	45.7	7.7	기아차	116.4	-1.8
기아차	50.8	-1.8	현대중공업	38.9	-4.1	LG 디스플레이	33.1	2.9	SK 이노베이션	75.8	-6.8
호텔신라	40.9	5.6	NAVER	26.5	-1.9	대림산업	32.7	0.8	엔씨소프트	62.8	-9.9
엔씨소프트	39.1	-9.9	SK C&C	19.1	5.7	NAVER	30.9	-1.9	현대모비스	61.5	-2.0
현대모비스	38.1	-2.0	LG 생활건강	18.7	-3.1	현대건설	28.5	5.3	롯데케미칼	54.1	-6.0
삼성물산	36.4	-2.8	현대백화점	14.6	0.7	GS 건설	25.2	1.8	삼성물산	49.9	-2.8
신한지주	31.7	-1.2	아모레 G	13.7	2.9	한국가스공사	20.7	3.2	SK	49.6	-6.6
하나금융지주	28.9	-1.3	한국가스공사	13.6	3.2	SK C&C	19.2	5.7	하나금융지주	43.8	-1.3

자료: KOSCOM

▶ 아시아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구분	7/08	7/07	7/04	7/03	7/02	07월 누적	14년 누적
한국	108.9	180.5	12.6	167.1	306.4	899	3,792
대만	89.5	131.7	-201.6	7.8	298.8	529	10,792
인도	--	130.7	166.4	886.2	-688.0	871	10,788
태국	65.8	52.9	-1.1	13.8	19.4	151	-1,096
인도네시아	135.3	65.1	-47.9	-17.4	23.0	203	4,033
필리핀	12.0	20.7	-3.6	-4.9	9.2	61	1,073
베트남	-2.4	1.7	4.7	1.8	0.5	8	291

주: 대만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현황은 TWSE(Taiwan Stock Exchange) + GTSM(Gre Tai Securities Market)의 합산 데이터임. GTSM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해당되는 General Board와 프리보드 역할을 하는 이머징 스타 마켓 등으로 구분. 이머징 스타 마켓은 General Board로 건너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

자료: Bloomberg, 각국 증권거래소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